

초월의 다양한 의미

아브라함 H. 매슬로(Abraham H. Maslow)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

1. 청소년기의 비인격화 유형 중 자의식의 상실, 자기 알아차림의 상실, 자기 관찰의 상실 의미에서의 초월.

이는 무언가에 몰입하고, 매혹되고, 집중할 때 오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자기 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정신 밖의 무언가에 대한 명상이나 집중은 자기 망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특정한 의미에서 자아 또는 의식적 자아의 초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피부와 몸, 혈류를 초월한다는 메타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초월.

예를 들어, 존재가치(B-value)와의 동일시를 통해 존재가치가 자아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aslow, 1967 참조)

3. 시간의 초월.

예를 들어, 제가 학위수여식 행렬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학사모와 가운을 쓴 채 약간 우스꽝스럽다고 느끼다가, 갑자기 특정 순간과 장소에서 지루하고 짜증난 개인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비전이나 상상 속에서 학위수여식 행렬은 미래로 아주 멀리, 제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었고, 그 선두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앞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 세대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모든 위대한 학자들과 교수들, 지식인들의 후계자이자 추종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후, 이 비전은 제 뒤로도 아득히 멀리, 희미한 무한대로 뻗어 있는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언젠가 이 학자들의 행렬, 지식인들과 과학자들, 철학자들의 행렬에 합류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렬의 일부가 된 것에 감격했고, 그 위엄을 느꼈습니다. 제가 입은 가운뿐만

아니라 이 행렬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의 저 자신에 대해서도 존엄성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피부를 넘어선 무언가를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한 영원한 교사라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교사의 플라톤적 본질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간 초월은 다른 의미에서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스피노자, 에이브러햄 링컨, 제퍼슨, 윌리엄 제임스, 화이트헤드 등과 매우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증손자나 다른 후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앨런 휠리스(Allen Wheelis, 1958)가 그의 소설 『탐구자(The Seeker)』에서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4. 문화의 초월.

매우 구체적인 의미에서, 자아실현하는 사람(self-actualizing person) 또는 자아초월적 자아실현인(transcendent self-actualizing man)은 보편적 인간입니다. 그는 인류의 일원입니다. 그는 특정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문화를 넘어서 올라가 여러 면에서 그 문화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가지가 아주 높이 뻗어 있어 뿌리가 박힌 토양을 내려다볼 수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저는 자아실현하는 사람의 문화적 조건화에 대한 저항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뿌리를 둔 문화를 특정한 방식으로 초연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치료에서 자신의 경험을 동시에 체험하면서도 비판적이거나 편집적으로, 또는 초연하고 떨어져서 관찰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경험을 비판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통제를 가정하고, 따라서 그것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신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문화의 일부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문화와 무의식적으로 전제적으로 동일시하는 무심하고, 맹목적이며 몰자각한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5. 자신의 과거 초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초월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존재인지(B-cognition)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과거를 현재의 자아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수용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후회, 유감, 죄책감, 수치심, 당혹감 등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를 자신이 무력했던 것,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이 단지 수동적이었고 외부 요인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 상황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되었음은 물론 현재도 행위자임"을 의미합니다.

6. 외부 과제, 대의, 의무, 타인과 현실 세계에 대한 책임에 반응할 때, 우리는 자아, 자기, 이기심, 자아 중심 등의 초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때, 이 또한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자아의 초월, 즉 자아의 낮은 욕구의 초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물론 궁극적으로 메타동기(metamotivation)의 한 형태이며, 해야 할 일과의 동일시입니다. 이는 심리 외적 요구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일종의 도가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다"라는 문구는 마치 그것에 속해 있거나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심리 외적 현실에 순응하고, 수용하며, 반응하는 이러한 능력을 암시합니다.

7. 신비 체험으로서의 초월.

여기서 저는 다양한 종교 문헌에서 고전적으로 묘사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나 우주 전체, 또는 그 사이의 무엇과의 신비로운 융합을 의미합니다.

8. 죽음, 고통, 질병, 악 등의 초월.

이는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죽음, 고통 등의 필연성과 화해할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신과 같은 혹은 올림포스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며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태도가 달성된다면, 예를 들어 존재인지(B-cognition)에서 가능한 것처럼, 그때 비통함, 반항심, 분노, 원한 등이 모두 사라지거나 적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9. (위와 중복됨) 초월은 자연 세계를 수용하는 것, 도가적 방식으로 그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두는 것, 자아의 낮은 욕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피부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요구, 심리 외적 사물들을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 먹을 수 있거나 먹을 수 없는 것,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것 등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문구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이는 존재인지의 필수적인 한 측면입니다. 존재인지는 자아, 낮은 욕구, 이기심 등의 초월을 의미합니다.

10. 우리-그들의 양극성 초월.

개인 간의 제로섬 게임의 초월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너지(synergy)의 수준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 대인 간 시너지, 사회 제도의 시너지 또는 문화의 시너지를 말합니다(Maslow & Gross, 1964).

11. 기본 욕구의 초월 (욕구를 충족시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의식에서 사라지게하거나, 욕구 충족을 포기하고 그 욕구를 정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는 "주로 메타동기(metamotivation)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는 존재가치(B-values)와의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12. 동일시-사랑은 일종의 초월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이나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사랑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 타적"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자아의 초월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넓은 범위의 동일시를 암시합니다. 즉,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동일시하며, 극단적으로는 모든 인간과의 동일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더욱 포괄적인 자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계는 인류 전체와의 동일시입니다. 이는 또한 내면 심리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자신을 형제자매들의 무리 중 하나로 경험하는 것, 인류에 속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3. 앙갈(Anghal)식 동향성(homonomy)의 모든 예시들,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Anghal, 1941).

14. 회전목마에서 내리는 것. 도살장을 피 묻지 않고 걸어가는 것. 더러움 속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광고를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 위에 있다는 것,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클, 베텔하임 등이 심지어 강제수용소 상황마저도 초월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속박, 노예 상태 등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1933년 뉴욕 타임스 1면에 실린 사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를린에서 수염 난 노인 유대인이 조롱하는 군중 앞에서 쓰레기 트럭에 실려 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그 노인은 군중에 대해 연민을 느꼈고, 그들을 불행하고 병든, 비인간적인 존재로 여기며 동정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악의나 무지, 어리석음, 미성숙함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 상황을 –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포함하여 – 마치 객관적이고 초연하게, 매우 높고 비개인적이거나 초개인적인 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15. 다른 사람들의 의견, 즉 반영된 평가의 초월.

이는 자기결정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옳은 일을 할 때 인기가 없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율적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아가 되는 것, 자신만의 대본을 쓰는 것,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조종되거나 유혹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쉬(Asch) 유형의 실험에서 순응자가 아닌 저항자들입니다. 범주화되는

것에 저항하고,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제안, 선전, 사회적 압력, 다수결에 의해 패배당하는 것 등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6. 프로이트적 초자아를 초월하고 본질적 양심, 본질적 죄책감, 마땅히 받아야 할 적절한 후회, 유감, 수치심 등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17. 자신의 약점과 의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부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로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대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모든 적응 방식, 대처 방식, 방어 기제는 강함에 대항하는 약함의 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존성과 독립성, 무책임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배의 선장이나 차의 운전자가 되는 것과 그저 승객이 되는 것의 차이와도 비슷합니다.

18. 쿠르트 골드슈타인(Kurt Goldstein, 1939)의 개념을 빌리자면, 현재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의 관점에서도 존재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장 눈앞의 자극이나 현재 상황, 현실에만 얹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골드슈타인이 말한 '구체적인 것으로의 환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적절한 표현은 '실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의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 이분법(양극성, 흑백 대립, 양자택일 등)의 초월.

이는 이분법에서 더 높은 통합적 전체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론을 넘어 계층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한계는 우주를 하나의 통일체로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초월이지만, 이 궁극적 한계로 가는 모든 단계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초월입니다. 어떤 이분법이라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 대 이타적, 남성적 대 여성적, 부모 대 자녀, 교사 대 학생 등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초월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배타적이고 대립적이며 제로섬 게임 같은 특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호 배타적인 차이와 대립이 하나의 통일체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일된 시각이 더 현실적이고, 더 진실에 가까우며, 실제 현실과 더 잘 부합합니다.

20. D-영역(D-realm, Deficiency realm, 결핍 영역)에서 B-영역(B-realm, Being realm, 존재 영역)으로의 초월. (물론 이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초월과 겹칩니다. 사실, 각각의 초월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 자신의 의지 초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정신으로).

이는 자신의 운명이나 숙명에 순응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며, 스피노자적 의미나 도가적 의미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개인적 의지, 통제권을 줘고 있음, 통제를 하고 있음, 통제가 필요함 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22. '초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뛰어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전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거나, 더 나은 댄서나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더 나은 목수가 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23. 초월은 또한 신성해지거나 신과 같이 되는 것,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진술을 초인간적 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메타휴먼(metahuman)' 또는 'B-휴먼(B-human, Being-Hu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거나 신성해지거나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실제로 자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는 여전히 인간 본성의 잠재력입니다.

이분법적 민족주의, 애국심,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초월하는 것, 즉 '그들'에 대항하는 '우리'라는 의미에서의 우리-그들, 또는 아드리(Ardrey, 1966)의 적대-친밀 복합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제의 어린 제네바 소년은 제네바 사람이면서 동시에 스위스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네바 사람이거나 스위스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포괄적이고 상위의, 더 통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달이 필요합니다. 저의 민족주의, 애국심,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동일시는 인류 전체나 유엔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높은 차원의 애국심과 반드시 대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위 차원의 애국심은 당연히 더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온전히 인간다운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엄격한 지역주의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좋은 미국인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미국인이어야 합니다(그것이 제가 자란 문화이고, 제가 결코 떨쳐버릴 수 없고 떨쳐버리고 싶지도 않은 채로 세계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완전히 그리고 단순히 세계주의적인 세계 시민은 특정 장소에서, 가정에서, 특정 언어로, 특정 문화 속에서 자란 세계 시민만큼 좋은 세계 시민이 아닙니다. 후자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더 높은 욕구와 메타욕구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것은 낮은 수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계층적 통합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 다원주의, 차이를 즐기는 것,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여러 레스토랑을 즐기는 것,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즐기는 것, 다른 문화에 대한 민족학적 연구를 즐기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4. 초월은 존재(Being)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 존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존재인지(B-cognizing)를 하는 것, 고원 생활(plateau-living)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정 경험과 같은 격렬한 존재인지뿐만 아니라 평온한 존재인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통찰이나 위대한 전환, 또는 위대한 신비 체험, 위대한 깨달음, 위대한 완전한 각성 이후에, 그 새로움이 사라지고 좋은 것들이나 심지어 위대한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사람은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편안히 살며 영원하고 무한한 것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놀라움과 경악을 극복하고, 플라톤적 본질들 사이에서, 또는 존재가치(B-values) 사이에서 평온하고 고요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격렬하거나 감정적으로 강렬한 위대한 통찰과 존재인지(B-cognition)와 대조되는 표현은 고원인지(plateau-cognition)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정 경험(peak experiences)은 반드시 일시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나 통찰은 사람과 함께 남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시 순진해지거나 무지해질 수 없습니다. 그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눈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종이나 깨달음에 익숙해지거나 애덴동산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설명할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람은 보통 일상적인 일로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또는 존재인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 확실히 그가 원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평온한 존재인지나 고원인지는 자신의 통제 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것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성의 (일시적) 달성이나 최종성의 달성, 또는 목적이 되는 것은 초월의 한 예입니다.

25. 도가적 객관성(존재 수준의 객관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관심하고 중립적인 관찰자의 객관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객관성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6.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가치가 하나로 융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이에 대해서는 1963년에 발표한 '사실과 가치의 융합' 논문을 참고하세요).

27. 부정적인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은 악, 고통, 죽음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절정 경험에서 볼 수 있는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과도 화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시에 이는 억압, 장애물, 부정, 거부 등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28.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는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면 전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존재가치(B-values)를 내면화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존재가치는 어디에나 있고, 그것이 자아를 정의하는 특성이 되면, 자아 역시 어디에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29. 앞서 말한 여러 가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과 분투, 소망과 희망, 그리고 모든 의도적인 행동을 초월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말하면, 이는 목표를 이루고 난 후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실현되고,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와 있는 상태, 여행 중이 아니라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또한 개럿 부인(Mrs. Garrett)이 사용한 표현인 '높은 무관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가적인 느낌으로,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즉 노력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완전히 행복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야망, 효율성의 초월입니다. 이는 가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복의 상태, 만족의 상태,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수한 감사. 순수한 감사함. 행운, 좋은 운의 상태와 느낌, 은총의 느낌, 거저 주어진 은총의 느낌입니다.

최종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수단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30. 연구 목적이나 치료 목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특별한 종류의 초월 중에서 두려움을 초월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나 용기의 상태(이 둘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에 이르는 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31. 또한 버키(Bucke, 1901)가 사용한 우주 의식(cosmic consciousness)도 유용할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현상학적 상태로, 사람이 어떻게든 우주 전체, 또는 적어도 그 통일성과 통합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자신의 자아 포함)을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는 마치 당연히 우주에 속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고아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는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우주의 광대함 때문에 자신이 작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절대적 권리로 그곳에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는 우주의 이방인이나 침입자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소속감을 매우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추방, 고립, 외로움, 거부감, 뿌리가 없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의 감정과 대조됩니다. 이런 인식을 한 후에는 명백히 이러한 소속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느낌,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절정 경험에서의 이런 우주 의식 유형의 존재인지(B-cognition)를 다른 유형과 대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이란 의식을 좁혀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사물, 또는 한 가지 사건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대상이 전체 세계, 전체 우주를 대표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절정 경험과 존재인지의 '좁혀지는' 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32. 초월의 특정한 의미에 대해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존재가치(B-values)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존재가치를 내면화하고 그 가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존재가치가 그 사람의 주된 동기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과 상태가 바로 초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 개인차를 특정한 의미에서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에 대한 가장 높은 태도는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 즐기며, 마침내 그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독창성의 아름다운 예로서 말입니다. 개인차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에 경탄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더 높은 태도이며, 따라서 일종의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차에 대한 이런 궁극적인 감사와는 별개로, 개인차를 초월하는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차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공통점과 상호 소속감, 그리고 궁극적인 인간성이나 종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제자매라는 의미에서 개인차, 심지어 성별의 차이까지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초월됩니다. 즉, 어떤 때는 개인 간의 차이를 매우 의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때는 이러한 개인차를 인간의 보편성과 유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34. 특정 이론적 목적을 위해 유용한 특별한 종류의 초월은 인간의 한계, 불완전함, 단점, 유한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벽함에 대한 급격한 최종 경험이나 완벽함에 대한 고원 경험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사람은 목적 그 자체, 신, 완벽함, 본질, 존재(Being, 되어가는 것(Becoming)이 아닌),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일상적 인간성을 초월하여 비범한 인간성 또는 메타인간성,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현상학적 상태일 수 있고, 인식의 한 형태일 수 있으며, 철학의 개념적 한계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플라톤의 본질이나 이데아와 같은 것입니다. 강렬한 절정 경험의 순간이나 어느 정도 지속되는 고원 인지 상태에서, 사람은 완벽해지거나 자신을 완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에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을 해치는 악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은 전통적으로 신에게만 속한다고 여겨졌던 특성들을 주관적으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전지(omniscience), 전능(omnipotence), 편재(ubiquity, 어디에나 있음)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순간에 사람은 신, 현자, 성인,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비록 그것이 인간의 최상의 상태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메타인간성(metahuman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상태가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35. 자신의 신조, 가치 체계, 신념 체계의 초월. 이 주제는 심리학에서 제1세력, 제2세력, 제3세력이 많은 이들에 의해 상호 배타적으로 여겨졌던 특별한 상황 때문에 별도로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타적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배타적이기보다는 포괄적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프로이트 이론을 넘어서며(epi-Freudian) 실증주의 과학을 넘어섭니다(epi-positivistic science). 프로이트 이론과 실증주의 과학 이 두 관점은 틀리거나 부정확하다기보

다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이 두 관점의 본질은 더 크고 포괄적인 구조에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물론 이들을 더 크고 포괄적인 구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수정이 필요하며, 특정 실수들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두 관점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부분적인 특성들을 포함합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편을 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나 클라크 헐, 갈릴레오, 아인슈타인, 다윈 같은 학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일종의 지역 애국심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클럽이나 모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은 포용성이나 계층적 통합, 전체론의 특별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다른 지적 분야에서 '학파'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해당됩니다. 결국, 우리는 학파에 대해 양자택일의 태도를 취하거나 통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

초월이란 인간의 의식, 행동, 관계가 가장 높고 포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신, 중요한 타인, 인류 전체, 다른 종, 자연,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초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층적 통합이라는 의미의 전체론과 인지 및 가치의 동형성을 전제로 합니다.)

REFERENCES

- ANGYAL, A. *Foundations for ascience of personality*. New York:
Commonwealth Fund, 1941.
- ARDREYR,. *Territorial imperatives*. New York: Atheneum Press, 1966.
- BUCKE, R. *Cosmic consciousness*. New York:Dutton, 1921
- Cm.DsSTEIN,K., *The organism*. New York: American Book Co., 1939.
- MASLOW, A. H. *Resistance to acculturation*. J.Soc. Issues, 1951,7, 26·29.
- MASLOW, A. H. *Fusions of facts and values*. Amer,J.PSyc1IO- anal, 1963,23,
117-131.
- MASLOW, A. H. A *theory of metamotivation: the biological rooting of the value life*.J. HumanisticPsychol.,1967,7, 93-127.
- MASLOW, A. H., & GROSS, L. Synergyin society and in the individual. J.Indiv.
Psychol., 1964, 20, 153-164.
- WHEELIS, A. *The seeker*. New York: Random House, 1960.